

# 입 상 작

[2022년 건설사고 체험수기 공모전]

**최 우수 상**

# 건설사고 체험수기 응모 서식

제 목 공도구의 위험성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된 업무중 하나가 사고의 위험이 예지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를 개선 및 제거하는 업무입니다.

사고 발생 당일도 평소와 같이 현장 점검중에 말비계(우마)에 올라서서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배관 일부분을 자르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발견 했습니다.

말비계 사용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하는 공도구(핸드그라인더)에 안전커버가 탈착이 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같이 농담도 하고 편하게 지내던 반장님이라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장님, 핸드그라인더 안전커버 부착하세요.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어~, 왔어! 이게 높이가 있어서 커버 부착하면 작업이 힘들어.

금방 끝나니까 한번만 봐줘~'

'에구, 반장님 그래도 규정이란게 있는데 커버 부착 안하면 수거 합니다!'

'알았어.. 뽀뽀하게 굴기는. 커버 저기 있으니까 부착해서 쓸께. 걱정마~'

'그래요.. 부착해서 쓰는게 안전해요. 반장님 그럼 꼭 부착해서 쓰세요. 저는 갑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걸어가던중 잠시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예감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난곳은 방금 작업하던 반장님쪽에서 났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뛰어가 보니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반장님을 발견 했지요.

일단 119에 연락을 하고 사무실에도 연락을 한뒤에 반장님 상태를 확인해보니 핸드 그라인더 날이 깨지면서 얼굴에 박혀있는 상태 었습니다. 반장님도 놀래서 굳어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피가 많이 나는걸 처음 본 저도 굳어 버렸습니다.

잠시뒤에 119가 도착해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으로 이송해갔습니다.

## 건설사고 체험수기 응모 서식

제 목      공도구의 위험성

급한일을 수습하고나서 병원에 알아보니까 얼굴 수술을 바로 실시 했고 수술은 잘끝났다고 하더군요. 일단 입원하고 있던 상황이기에 다음날 병문안을 갔습니다.

'반장님~ 몸은좀 괜찮습니까?'

'아파 죽겠다. 예구.. 이제 얼마간 일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인지.'

'어떻게 된거예요?'

'그게, 어제 와서 안전커버 부착하라고 하고 갔잖아. 그때 바로 작업 그만하고 커버 부착하면 되는데 절단부분이 딱 10cm 남았어.

나도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커버 다시 부착하고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릴거 같은거야. 그래서 그냥 이것만 마저 자르고 커버 부착하려고 했지. 그때 갑자기 드드득 거리더니만 날이 깨지면서 얼굴쪽으로 날아오더라고. 그러면서 떨어졌지. 그뒤로는 정신이 없었어.

나중에 정신차리니까 수술 끝났더라고.'

'그러게 커버 부착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예휴. 내잘못이다. 그냥 수거해가면 사고 안났을건데.'

'그래, 그말듣고 커버 부착하고 작업 마저 했으면 별일 없었을건데. 후회가 막심하네.. 암튼 미안해.'

'아니예요. 그래도 이만한게 다행이지, 눈이라도 다쳤으면 어떡합니까. 몸조리 잘하시고 다시 일 시작하셔야죠.'

'그라. 빨리 나아서 다시 출근할테니까 나 미워하면 안되.. 하하하~~'

그렇게 한달쯤 뒤에 반장님은 다시 출근 하였고 그뒤로는 다른 근로자가 똑같이 안전커버 탈착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 반장님이 옆에 가서서 얼굴에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무용담을 얘기하시곤 했지요.

# 건설사고 체험수기 응모 서식

제 목   공도구의 위험성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위험한 상황을 발견합니다. 발견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시정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만 하다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한곳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현장에는 많은 관리자 및 근로자들이 있지만 누구하나 불안정한 상태 및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들은 하지요.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끼이면 어떡하지 등.

하지만,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 및 행동을 보고 걱정만 하다가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관리자 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들도 불안정한 상태 및 행동이 발생되면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서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상관 없는것에 대한 무관심, 흔히 얘기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불안정한 상태나 불안정한 행동이 제거가 우선으로 시행이 된다면 모든 재해는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재해로 현장이 준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우 수 상

# 건설사고 체험수기 응모 서식

## 제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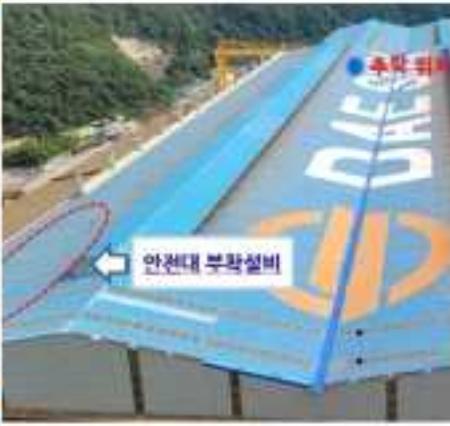
안전관리 앞에서 조연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연입니다.

### [1부] 나는 안전관리 앞에서 조연이었다.

- 2022년도 2월 나는 본부에서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하다가 아산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5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요즘 대세인 안전업무에 나름 자신이 있었고 새로운 업무분장에도 역시나 지사 안전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은 6지구 정도라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그 때는 들었다.
  - 아산지사는 구청사에서 신청사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중이었고 그렇게 나의 첫 출장지가 되었다. 현장에선 철거가 진행중 이었으며 지붕철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현장대리인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 “감독님 규칙을 보면 이것저것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나는 본부에서의 그간 경력이 현장 관계자에게 너무 경직된 모습을 보여 사람이 유연해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안전대 부착설비랑 안전대 그리고 안전모만 꼭 좀 착용하게 해주시죠. 언제 이런 걸 다 지키겠습니까? 이 정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계신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를 베테랑 처럼 보이면서 이런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식간에 나 자신과 타협을 했다.
  - 그랬다. 관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나조차도 현장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과 설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겠냐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었고 당연히 그런 정립되지 않은 감정적 대응은 모든 것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 그리고 다음날 사고가 일어났다. 한 근로자가 창고동 옥상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 트러스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슬레이트측으로 넘어지면서 추락을 하였다. 추락 당시 안전대 부착설비와 안전대를 착용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고 매달려 벽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다급하게 전해졌다.
  - 순간 현재의 나는 어제 나의 모습이 스쳐지나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에 따라 첫 번째 지붕 가장자리에 설치된 기존 안전난간대를 보강조치 하고 두 번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현실과 타협하여 입을 다물고 있던 나의 과거가 한 없이 원망스러웠고 부상당한 근로자가 크게 다치지 않길 바라며 10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했다.
- 1부. 끝.

## [2부] 안전관리 앞에서 조연은 없다. 우리 모두가 주연이다.

- 나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혹시나 나의 급박한 연락이 현장 상황처리 중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통화가 공사감독님께 걸려왔다. “아이고~ 감독님 다행히 안전대를 하고 있어서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은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간단한 타박상 정도로 보입니다.”
- 솔직히 수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안도의 한숨에서 결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으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동안 본부에서 수년간 안전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교육했던 내가 현실에서는 그 누구보다 타협을 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심스럽고 속된말로 쪽팔렸다.
- 하지만 후회만 한 것은 아니었다.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곧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교육자료를 취합하였고 특히나 지붕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에서 찾기 시작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나의 불감증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직접 움직임으로써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 그렇게 약 일주일동안 자체조사와 교육자료를 전파 후에 우연히 TV를 켜고 그 때 조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 “저는 사람들이 영화속에 주연과 조연이 있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내 작품이자 내가 주연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재화된 마음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 그 인터뷰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상황과 연결되며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현장은 아니겠지? 이런 안전 불감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현장도 사고가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그저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고는 쌓이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점수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자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또한 안전관련 법정서류를 보험으로 여기며 페이퍼관리로 취급하지 말고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하여 그 결과물이 정리됨으로써 우리의 안전관리를 스스로 객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 글을 정리해보자. 최근 정부에서는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이 이행되면서 많은 현장에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현장을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 어느 현장에서도 다치면서 까지 해야만 하는 일은 없다. 꼼꼼히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펴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 앞에서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안전 불감증을 점차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분	관련사진		비고
1	 <p>(사고후) 안전대 부착설비 전경</p>	 <p>(사고후) 창고 내, 추락사고 현장 전경</p>	
2	 <p>(조치후) 발판 및 안전대 설치 전경①</p>	 <p>(조치후) 발판 및 안전대 설치 전경②</p>	
3	 <p>추락 위치</p> <p><b>지붕에서 추락 03</b></p> <p>2022.9.17. 11:30경 전라남도 고흥시 소재 지붕 보수·보강 공사 현장에서 기존 지붕 체결창에 급속판 지붕재를 덮쳐주는 작업을 맡은 재해자가 골판 2층 지붕 위에서 체결창 위에 얹힌 규칙포를 걸어 낸 뒤 아래층 지붕으로 내려와 재량창 위로 걸어가던 중 재량창 파손으로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사고조사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p> <p>타 현장 사고사례 ①</p>	 <p>안전대 부착설비</p> <p><b>지붕에서 추락 04</b></p> <p>2022.8.27. 11:03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맡은 재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붕 위에서 두께 2mm 전유강화플라스틱 지붕재(재량창)를 밟고 지나가던 중 지붕재 파손으로 약 3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사고조사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p> <p>타 현장 사고사례 ②</p>	

# 장 려 상

# 건설사고 체험수기 응모 서식

## 제 목

겨울, 내 가슴속 한 권의 속삭임

매 겨울, 현장을 지나가다 펌프카를 볼 때면 내 가슴속 한 권의 기억이 이따금 나에게 속삭여온다.

2021년 겨울, 현장 내에서 골조가 한창 이뤄지고 있을 때, 펌프카가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업체에 부탁받고 발길을 돌려 펌프카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펌프카는 아우트리거를 펼쳐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점검도 받지 않은 장비가 운행하고 있었을 때 내 머릿속은 짜증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펌프카에 다가가 작업 중지를 외쳤고, 펌프카가 작업 중지하는 것을 보며 건축 주임의 부름에 뒤돌아섰다. 그 순간 내 뒤로 무언가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내 뒤에는 압송호스가 떨어져있었다. 펌프카 기사가 전 현장에서 사용한 압송호스를 묶은 채로 퍼진 붐을 접으면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압송호스가 떨어졌던 것이었다.

처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하역 중인 자재가 떨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바로 세 걸음 뒤에 압송호스가 떨어져 있던 것을 보았을 때, 내 몸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꼈던 소름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만약 그때 건축 주임이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교육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항상 말해왔었다.

**“작업 중인 장비는 위험하니 절대로 근처에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점검받지 않은 장비의 작업반경 내로 스스로 걸어갔고, 가기 전에도 맨눈으로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보며, 지금도 나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다.

나도 하지 않는데, 다른 근로자가 과연 이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면 안전, 남이 하면 불감증, “내안남불”이라고 불러도 나는 아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압송호스가 내 뒤로 떨어졌을 때, 그걸 바라보던 펌프카 기사는 아마 더 이상 압송호스를 고정한 채로 붐대를 펼칠 일은 없을 것이다. 펌프카 기사도 작업마다 안전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날을 기억하겠지.

그 경험으로 지금까지 나는 장비가 작동 중일 때 근처로 가지 않는다. 현장 또한 근로자가 장비에 접근하는 것도 못 하게 작업반장을 불러 주변 통제 확인이 될 때까지 장비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모든 근로자가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같지는 않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팀과 감시단이 보는 앞이면 돌아서 지나가고, 멀리서 바라보면 신호수 통제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던 중 월간 안전소통회의 중 넋지 안전이 주제로 올라왔다.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는 흥미로웠는데, 브라질에서 4,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서 전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나는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바로 안전벨트를 매면 와이파이가 무료기 때문이다. 그때 처음 나는 현장의 안전은 근로자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연하게도 그 무렵 QR코드가 많은 유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 현장도 여러 안전수칙이 적힌 QR코드를 열심히 설치하고 다녔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QR코드에 관해 물어봤을 때 그것을 찍어보는 근로자가 있을 리가 없었다. 거의 옆에 달린 광고 현수막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현장에서 어떤 것을 해야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나도 모르게 보물찾기가 생각이 났다. 우리 한번 현장에서 안전이라는 보물을 스스로 찾게 하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찾아본다면 안전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팀장님에게 바로 건의를 드렸고, 팀장님은 함박웃음과 함께 바로 승인을 해주셨다.

우리는 곳곳에 있는 QR코드 중 일부에 당첨 코드를 숨겨두었다. 그리고 광고 포스터를 식당, 안전교육장, 건설관리자 단독방 방에 뿌리고 다녔다. 많은 근로자는 저걸 보고 우리에게 보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어떤 근로자는 나에게 조용히 뒤에서 दिल을 제시했다.

**“보물 받으면 반 나눠줄 테니 좀 알려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입꼬리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었다.

우리에게 이벤트는 큰 이유가 있었다. 지나가던 근로자가 보물을 찾기 위해 짝어본다면, 근로자도 저러한 QR코드가 의미가 있음을 다시 생각해볼 것이고, 우리도 근로자가 안전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당첨된 근로자가 나왔을 때 우리 팀은 그날 기분 좋은 회식을 했다.



<보물찾기 이벤트 시안>



<보물 숨겨진 위치>



<당첨 QR코드 내용>

그 후로 우리는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안전을 신경 쓸 방안을 생각했었다. 고소작업대 협착사고가 많은 것을 보며 협착방지봉에 기준점을 설치해서 근로자가 기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유도하거나, 자재하역 시에 깃발을 설치해 신호수가 보지 못하는 곳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안전을 도입했었다.

더 재미있는 건 내가 타사의 안전사례를 검색하던 중 어떠한 블로그를 보았다. “어? 우리 현장이랑 똑같은 게 있네?”

우리가 해 온 것이 건설안전 캠페인 우수사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고 나는 팀장님께 알려드렸고 그 내용을 들은 우리 안전주임은 바로 직원 단체카톡방에 자랑스럽게 내용을 올렸다.

정말 그 누가 우리 현장이 우수사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아산달림 2-A3B. 공동주택 신축공사(금성백조건설) 현장에서는 사저용 고소작업대에 과속승장차량이 적절 높여도 설치되는지 유안으로 실험 확인할 수 있도록 과속승장차 장치에 식별 리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산달림 2-A3B. 공동주택 신축공사(금성백조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한 이동시 대비계와 불안정한 이동시 대비계를 적절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문 제작하여 권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우리 현장 우수사례>

<직원 단독방에 자랑 중>

나는 그 후로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팀장님께 건의드렸고, 팀장님은 내 생각을 듣고 좋은 방향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 현장은 2021년 두 가지 인정받게 되었다.

**'2021년 금성백조 안전보건 우수현장'**

**'2021년 금성백조 우수직원 - 안전팀장'**

우리 현장은 우수현장이 되었고, 팀장님은 우수직원이 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내가 한 번의 사고에서 겪은 마음의 변화가 이토록 길게 현장의 안전을 바꿔온 것이다.

이제 곧 2022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아마 이번 겨울에도 내 가슴속 한 켠의 기억은 이따금 다시 올라오겠지. 그때마다 내가 안전을 잊을 때쯤 내 귓가에 안전을 이야기해줄 것이다.

**"네가 관심 두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질 거야?"라고**